

2023년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포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사는 기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기쁨,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같은 것이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 영의 통치(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는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가 성숙하고, 건축되고, 의를 얻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 되는 것이다.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

메시지 1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

성경: 고전 1:2, 9, 2:9-10, 13:1-8, 롬 2:13, 애 3:22-24

- I.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시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 고전 1:2, 9, 24, 30.
- A.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 곧 누림 안으로 부르받았다(고전 1:9). ‘교통’이라는 단어는 누림의 사상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우리의 몫이다(고전 1:2, 골 1:12).
- B.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C.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럴 때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고전 1:9, 골 1:17하, 18하.
- D.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가장 충만히 얻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도의 누림을 우리의 상으로 얻게 된다 — 빌 3:14, 마 25:21, 23.
- E.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다 — 빌 2:2, 5, 1:20-21, 3:7-14, 4:13.
- F. 한 가지 것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생활 곧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져야 한다.
- G.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스무 가지 항목의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고전 1:9.
1.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누리야 한다 — 고전 1:2.
 2.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누리야 한다 — 고전 1:24, 30.
 3.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심지어 영광의 왕으로 누리야 한다 — 고전 2:7-8, 롬 8:30, 시 24:6-10.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깊이들(깊은 것들)로 누리야 한다 — 고전 2:10.
 5.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로 누리야 한다 — 고전 3:11.
 6.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고전 5:7), 무교병(8절),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식(10:3-4)으로 누리야 한다.

7.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고전 11:3, 골 2:19, 엡 1:19-23)와 몸(고전 12:12, 24-25상, 엡 4:15-16)으로 누려야 한다.
8. 우리는 그리스도를 첫 열매(고전 15:20, 23), 둘째 사람(47절),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마지막 아담(45절)으로 누려야 한다.

II.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곧 그분의 아들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시지만,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도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지 않다 — 고전 1:9, 롬 2:13, 애 3:22-24.

- A.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이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요 3:29-30, 엡 3:16-19, 21.
- B.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취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을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시 36:8-9, 사 12:3-6, 고전 12:13, 요 7:37-39, 4:10, 14, 롬 10:12-13, 살전 5:16-18.
- C. 하나님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 롬 2:13.
 1.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누림을 위한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들을 향해 돌아섰는데, 이 근원들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확대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할 수 없었다.
 2.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것(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요 4:13-14.
- D.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 사 57:20, 비교 55:1-2, 6-7.
- E.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데 신실하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 겔 14:3, 요일 5:21.
 2. 우리 환경의 외적인 평안, 우리 개인의 편안함과 안락함,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리를 빚나 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데 신실하시다.
 3.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데 신실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셔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동화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 롬 17:7-8, 고후 1:8-9, 요 16:33, 고전 10:3-4, 12:13.
 4.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는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낙심하는 법이 없으시다. 우리의 실패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우리를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이끄실 수 있게 한다 — 롬 8:28-29, 히 6:1상, 창 37:1과 각주, 47:7과 각주.

III.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고(2:9-10, 16:22) 서로 사랑하는 것(13:1-8 상)임을 제시한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계 2:4, 요일 4:19)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엡 4:16).

A.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요구 조건이다 — 고전 2:9-10, 마 22:37-38, 시 73:25, 116:1-2.

1.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계 2:4-5, 7.
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릴 때,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3.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편 1:14, 요 14:21, 23, 고후 5:14-15, 계 2:4-7, 골 1:18하, 롬 6:4, 7:6.
4.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분명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고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 — 고후 5:14.
5.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려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께 여쭙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것이다 — 시 27:4.

B.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13:8, 13, 비교 14:1, 3, 4하.

1.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단지 지식만을 얻어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 고전 8:1하, 비교 고후 3:6.
2. 사랑의 법인 생명의 영의 법(롬 8:2, 갈 6:2-3)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행 20:35, 살전 5:14) 사랑의 수고가 된다(고전 15:58, 살전 1:3). ‘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3.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엡 5:25)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고(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상),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4.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려면 우리에게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7, 롬 12:10-11.
5. 우리가 하나님과 건축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함께 섞이는 것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때,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 고전 12:14-27, 롬 16:1-16, 골 4:16, 요 12:24, 레 2:4-5.

삼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됨

성경: 롬 15:13, 14:17, 요 15:4, 11, 갈 5:22

I. 삼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 A.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라고 말한다.
1. 이것은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2. 하나님은 누림의 하나님이시다.
 3.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은혜이신 하나님을 누린다면 평안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 B. 그리스도는 또한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신다.
1.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2.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이 절을 말씀하셨다.
 3. 우리가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것은 기쁨의 문제, 곧 기쁨이 가득한 생활의 문제이다.
 4.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서 온다.
 5. 바로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6. 이러한 기쁨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며, 기쁨으로 하루 하루를 살게 된다.
- C. 성령 안에 기쁨이 있다 — 롬 14:17.
1.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기 원하신다 — 느 8:10, 엡 3:11.
 2. 삼일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 롬 15:13, 요 15:11, 17:13, 행 13:52, 갈 5:22, 고후 1:24, 빌 1:25, 2:17-18.
 3.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 램 15:16.
 4.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달콤한 한 가지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 요 1:14, 16-17, 고후 13:14.
 - a.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것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음식으로 사람에게 제시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창 2:7, 9, 시 16:11, 램 15:16.
 - b.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느 8:10.
 - c.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은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분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고 누리느냐에 있다 — 요 15:4-5, 골 2:6-7.

II. 삼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다.

- A.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기쁨이다.
1.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 안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 요 15:10-11.
 2. 주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상실된 것들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누리는 것은 이러한 상실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 벧전 1:8.
 3. 주님을 먹고 누리는 문제는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근거한다.

4.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생활이다 — 요 6:57, 고전 10:4.
 5. 신실하고 정상적이며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잠 29:18, 행 26:19.
 6.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앞장서야 한다 — 히 4:12.
 - a. 우리는 즉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서, 혼이 우리의 영을 따르게 해야 한다.
 - b.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의 영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7.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아들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하셨다 — 요 17:13.
 - a. 충만한 기쁨은 참된 하나 안에 있다.
 - b.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하나 되어 아버지를 함께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 요 17:13.
- B.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 골 1:12-13, 27, 2:9, 16-17, 3:1, 4, 11.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당된 몫 곧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유업이다 — 골 1:12.
 2. 그리스도는 우주 안의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다 — 골 2:16-17.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 골 3:1.
 4.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 골 1:27.
 5.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 골 3:4.
 6.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다 — 골 3:10-11.
- C.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1. 이 기쁨은 영광이신 주님 안에 잠겨 있다. 따라서 이 기쁨은 주님의 표현으로 충만하다.
 2. 우리는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을 얻는다.
 3.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는 영광이 가득 찬 기쁨을 갖는 것이다.
- D.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시 16:11),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사는 기쁨(아 1:1-4),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는 기쁨(고후 13:14, 엡 3:14-21),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는 기쁨(시 46:4상, 36:8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갈 2:20, 롬 8:38-39),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시 40:8상),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기쁨(빌 4:11),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마 25:21, 23) 같은 것이다.
- E.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 곧 그 영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갈 5:22.
1.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 롬 14:17.
 2.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이 더 깊어지게 한다 — 요 15:4.
 3.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 롬 14:17.
 - a.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기쁨이 가득하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 갈 5:22.
 - b. 바깥 환경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다 — 골 1:27.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

성경: 마 5:8, 13:3-9, 18-23, 잠 4:23, 렘 32:39, 엡 3:16-17

- I.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씨가 자라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집합체이자 사람의 총대 표이자 사람의 행동하는 대행자이다.
- A.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모든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 9:4, 히 4:12, 행 11:23, 요 14:1, 16:22)와 우리 영의 한 부분인 양심(히 10:22, 요일 3:20)이 더해져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 B. 우리의 마음이 활동적일 때에만 영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사람의 마음이 냉담하면, 영은 안에 갇혀서 그 역량을 나타낼 수 없다 — 마 5:3, 8, 시 78:8.
 - C. 혼은 사람 자신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마음은 우리 전 존재의 행동하는 대행자, 행동하는 위원이다.
 - D. 우리의 신체의 활동과 움직임은 신체의 심장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 곧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심장 곧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지에 달려 있다.
 - E.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 곧 생명의 ‘스위치’이다. 마음이 올바르게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은 방해를 받고, 생명의 법은 장애 없이 자유롭게 작용하지 못하여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도달하지 못한다. 비록 생명이 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큰 능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 — 잠 4:23, 마 12:33-37, 비교 겔 36:26-27.
- II. 우리의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 건축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라실 때 일어난다(요일 3:9, 벰전 1:23, 골 2:19, 엡 2:21, 4:15-16, 마 13:18-23).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써 주님께 협력해야 한다.
- A.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움을 원하신다.
 - 1.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고 고기 같은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 겔 36:26.
 - 2. 부드러움이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거나 반역적이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고 온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출 32:9.
 - 3. 부드러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장애 없이 자라실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마음이다 — 마 13:3-9, 18-23.
 - 4.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사용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그분은 환경을 통해 그분의 손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 — 고후 5:14, 4:16-18, 히 12:6-7, 비교 렘 48:11.
 - B.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 1.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선호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 마 5:8, 시 73:25, 비교 렘 32:39.
 - 2.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일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을 두려워한다 — 시 86:11, 사 11:1-2.
 - 3.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얻는 것이어야 한다 — 빌 3:7-14.
 - 4. 우리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 딤펱 1:5, 시 73:1.

- C.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1.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 어리고 내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마음이다 — 시 42:1-2, 아 1:1-4.
 2.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 주님께 돌이키고 계속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 고후 3:16.
 3. 모든 영적인 체험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체험도 가질 수 없다 — 엡 6:24, 계 2:4-5.
 4.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장비시킨다.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여 넘쳐흐를 것이다 — 요 21:15-17, 마 26:6-13, 28:18-20.
- D.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1. 평안한 마음은 거리낌이나 유죄판결이나 책망이 없는 양심을 가진 마음이다 — 행 24:16, 요일 3:19-21, 히 10:22.
 2.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누릴 수 있다 — 요일 1:7, 9, 딤후 1:5, 3:9.
 3.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실행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데, 이 평안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시는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 빌 4:6-7.
 4. 한 새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골 3:13-15.

I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고후 3:14, 4:4.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한 가지뿐임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는가이다 — 갈 1:16, 2:20, 4:19, 빌 1:19-21, 고후 3:18.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 롬 8:6.
- B.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 위선이다 — 마 6:2, 5, 7:5, 23:13-29.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의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방해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는 것과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된다.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일들을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 C.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세 번째 문제는 반역이다 — 고후 10:4-5.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 — 롬 8:6, 요일 2:27, 비교 엡 3:1, 4:1, 6:20, 고후 2:12-14.
- D.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네 번째 문제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다.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입지나 길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을 떨치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천연적인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 E.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고,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 마 16:24-25.

IV.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직면하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보아야 한다.

- A. 첫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생각의 문제이다.
1.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성공을 거둘지라도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다 — 비교 빌 2:5, 고전 2:16, 엡 4:23, 롬 12:2.
 2.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협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없다.
 3.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속사람과 일치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 조금도 없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안이 있고, 적대감이 없게 된다(롬 8:7). 그 결과 우리는 속에서 평안함을 느낀다 — 롬 8:6.
- B. 두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의지의 문제이다.
1. 비록 우리의 생각이 자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지하고 깊이 감지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복종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하며,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3.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는 둘 다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이다. 처리받은 의지는 주님께 정복되고 주님에 의해 부활하여 강하면서도 유연하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 빌 2:13.
- C. 세 번째 주관적인 문제는 우리 감정의 문제이다.
1.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 살후 3:5, 빌 1:8.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워해야 한다. 우리의 감정과 그분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 — 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계 2:6, 빌 1:8.
- D. 우리는 속사람에 이르도록 매일 강하게 됨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요 부분인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엡 3:16-17.

- V.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며 성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일은 주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의 생명에서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준에 이를 수 있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요 7:37-39상, 고후 4:10-12, 요일 5:16상, 고후 3:3, 6.

메시지 4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람

성경: 골 1:18, 27-28, 2:2-3, 3:1-4

- I. 우리가 골로새서에 계시된 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 A.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골 1:18.
1.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첫째이시고 첫째 위치를 차지하신다.
 2. 우주와 교회 모두 안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인 분이시다.
- B.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 골 1:27.
1.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2.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3. 이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심으로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될 것을 의미한다.
- C.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가리키는 중요한 많은 구절이 있다.
1.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 골 1:27.
 2.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 — 골 1:28.
 3.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 골 2:6.
 4. “그리스도를 따른 것” — 골 2:8.
 5.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골 2:13.
 6.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 골 2:20.
 7. “머리를 붙들지” — 골 2:19.
 8. “머리로부터” — 골 2:19.
 9.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골 2:19.
 10.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시해 준다.
 11. “하나님의 비밀이신 ...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 골 2:2-3.
 - a.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비밀,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 b.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 골 2:3.
 - c.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경륜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 d.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있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있다 — 엡 1:8, 17.
 12.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 골 2:9-10.
 - a.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풍성의 표현이 거한다.
 - b.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지닌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D.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 골 3:1.
1.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2.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셔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II. “머리를 붙(듭)니다. 온몸은 ...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 골 2:19.

- A.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해지시게 하는 것이다 — 고전 3:6-7, 갈 4:19.
- B. 몸이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에 달려 있다 — 엡 4:15-16.
 1. 몸이 머리를 붙들음으로 공급을 받을 때, 몸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란다 — 골 2:19.
 2. 몸은 머리로부터 자라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 엡 4:15.
- C. 몸이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 골 2:19.
 1.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식이다 — 고전 3:6-7.
 3.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랄 수 없다 — 고전 3:6-7.
 - a.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 b.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 롬 8:11.
- D. 몸이 자라는 것이 곧 몸이 건축되는 것이다 — 엡 4:16, 골 2:19.
 1.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 절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에 관한 비밀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 몸이 스스로 몸을 건축한다 — 엡 3:17상.
 - a.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신다 — 골 3:10-11.
 - b.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이런 식으로 몸이 건축된다 — 골 1:18, 2:19.
 3.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며,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함께 몸의 지체 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 요일 4:7-8, 11, 16, 19, 롬 5:5, 8:39.
 - a.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다.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 엡 5:25.
 - b.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랑 안에서 가르침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몸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가져오지 않는다 — 엡 4:14-15.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

성경: 창 41:39-44, 51-52, 45:5-8, 47:14-23, 50:15-21

- I. 영적 체험에 따르면, 야곱과 요셉은 한 사람이다. 요셉은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 곧 야곱의 성숙한 본성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온전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된 성숙한 성도인 야곱은 요셉을 통해 다스렸다 — 창 41:39-44, 히 6:1상, 갈 6:8, 5:22-23.
- A. 요셉으로 예표된 다스리는 방면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조성되신 그리스도이다 — 갈 4:19.
- B. 요셉은 ‘꿈쟁이’(창 37:19)였으며,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그분의 백성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이고 빛이 가득한 천체라는 꿈을 꾸었다(5-11절). 요셉의 두 가지 꿈(창 37:7, 9)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과 위치와 기능과 목표에 관한 하나님의 신성한 관점을 그에게 밝혀 주는 것이었다.
1. 우리는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간을 관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생명이 충만한 곡식 단들과 빛이 가득한 별들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해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 비교 창 38:27-30, 마 7:1-5, 벰전 3:8-9.
 2.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통제하고 그의 행동을 지시했다. 그가 그토록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한 것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비교 행 26:19). 요셉의 형들은 분노를 터뜨렸고(창 37:18-31) 정욕에 빠졌다(38:15-18). 그러나 요셉은 분노를 억제했고 정욕을 정복했다(창 39:7-23). 그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 단으로서 처신하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행동했다.
- C.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묘사된 천국 생활이었다.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요셉은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계시된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은 정복되어야 한다(마 5:21-32).
- D.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이다(행 7:9).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권위, 곧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창 39:2-5, 21-23).
1.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주님께 의해 모든 일이 잘되었다. 요셉은 학대를 받는 동안에도 주님의 주권으로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변명을 누렸다.
 2.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변성을 누렸을 때, 요셉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 창 39:4-5, 22-23.
- E.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몽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창 40:8). 결국 요셉은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났고(41:9-13),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일에서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좌로 인도되었다(14-46절).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고 권위를 얻었다.
1. 앤드루 머리(Andrew Murray)는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는 언제나 자신이 체험한 것 이상의 것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상이 성취된 것에 따라서 말하기보다 그 이상 자체에 따라서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비록 우리의 이상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상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이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성취되었다.
 3.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절대성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 — 행 26:16-19.

- F.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가져가거나 죽음을 가져갈 것이다(고후 2:14-16). 요셉은 술 맡은 시종에게는 복직을, 떡 맡은 시종에게는 처형을 가져갔다(창 41:12-13).
- G.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하 감옥’ 안으로 넣으실 것이다. 지하 감옥이 없으면 우리는 보좌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중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졸업하여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지하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 — 엡 3:1, 4:1, 약 1:12.

II. 열매 많은 큰 가지인 요셉(창 49:22)은 많은 가지들(요 15:1, 5)인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뻗어 나가는 가지이신 그리스도(사 11:1-2)의 예표이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씬은 열매 맺음의 근원(시 36:9, 렘 2:13)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장하면서 모든 환경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빌 1:20, 4:22, 몬 10).

- A. 요셉은 보좌에 오를 때 영광과 선물을 받았다. 이 점에서 요셉은 승천 안에서 영광(히 2:9)과 선물(시 68:18, 행 2:33)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창 41:42).
 - 1. 반지와 옷과 금사슬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받으신 선물들을 묘사하며,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물들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셨다 — 창 41:42.
 - a. 인장 반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 위에 도장 찍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 행 2:33, 엡 1:13, 4:30, 비교 눅 15:22.
 - b.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객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고전 1:30, 비교 시 45:9, 13, 눅 15:22), 또한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 낸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빌 3:9, 시 45:14, 계 19:7-9).
 - c. 금사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비교 행 5:32). 금사슬을 건 목은 하나님께 정복되고 굴복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의지를 상징한다(창 41:42, 비교 아 1:10, 잠 1:8-9).
 - 2. 영적 체험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구원을 위하여 그 영의 도장 찍으심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의의 옷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한다(갈 2:20, 빌 1:20-21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목에 금사슬이 걸려서 의지가 성령께 정복되고 굴복되어야만 한다.
- B.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고 승천의 위치로 이끌린 후에 요셉은 아스낫과 결혼했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 세계에서 얻으신 교회를 묘사한다(창 41:45). 요셉은 그의 만아들의 이름을 (‘잇게 하다’를 의미하는) 므낫세라고 불렀고, 둘째 아들을 (‘열매가 배나 많은’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잇게 해 주셨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배나) 많이 낳도록 해 주셨구나.”(51-52절)라고 선포하였다.

III.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 영의 통치(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는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다 — 롬 5:17, 21, 14:17-18, 비교 고후 3:17-18, 딤후 4:22, 계 4:1-3.

- A. 비록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온전하게 되고 건축되도록 그들을 합당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다루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것은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함께 사는 단체적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생명은 부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 창 42:9, 24, 43:30-31, 45:1-2, 24.
- B. 하나님의 제한 아래 산 요셉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러한 생활은 신성한 생명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다 — 요 5:19, 30하, 7:16, 18, 14:10, 마 8:9-10.

- C.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루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평온한 생활, 깨어 있는 생활, 분별 있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이 자아를 부인하는 생활, 곧 왕국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다 — 창 45:24, 마 16:24, 대하 1:10, 사 30:15상, 빌 1:9, 딤후전 5:1-2, 살전 3:12, 4:9, 살후 1:3, 롬 12:10, 요일 4:9, 히 13:1.
- D.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부인이고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 마 16:24, 비교 26:53, 고후 2:12-16.
- E.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라고 말했다(창 45:5, 7, 50:19-21, 비교 41:51-52).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실재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였다(창 45:5-8, 50:15-21).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그의 영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IV.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공급을 얻었다(영한 동번 찬송가 635장,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65장).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게서 양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네 종류의 대가, 곧 그들의 돈, 그들의 가축, 그들의 땅, 그들 자신을 지불해야 했다 — 창 47:14-23, 비교 계 3:18.

- A. 돈은 편익을 나타내고, 가축은 생계 수단을 상징하며, 땅은 재산을 나타낸다. 우리가 분배하는 분이 신 주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분께 우리의 편익과 우리의 생계 수단과 우리의 재산을 드려야 한다.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 공급을 그분께 받게 된다.
- B.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양식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산출하는 씨앗을 비롯하여(창 47:23) 가장 좋은 몫을 주님께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 곧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려야 한다(레 1:4).
- C. 우리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중 최상의 몫을 누리게 된다.

V.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 창 49:25-26, 신 33:13-16, 계 21:5.

- A. 변화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를 바꾸는 신성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축복은 생명의 넘쳐흐름이다.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빛남의 절정으로서 축복하는 삶이었다 — 잠 4:18, 히 11:21, 창 47:7, 48:15-16.
- B.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시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낡은 것이지만, 무엇이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새롭다(고후 5:17).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놓여져, 우리가 몸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4:16, 롬 12:1-2).
- C. 하나님을 우리의 새로움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분께서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다. 요셉에게 주어진 우주적인 축복은 축복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타락에서 온 저주에 속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 — 엡 5:20, 살전 5:16-18.

메시지 6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과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성경: 히 12:2, 골 2:15, 계 19:7-9, 느 8:10하

I.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다’ — 히 12:2.

- A.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므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 엡 5:25.
- B.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들에 대한 희생 제물로 그분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믿는 이들을 위해 죄가 되셨으며, 이 세상의 통치자를 쫓아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한 알의 밀로서 죽음 안으로 떨어지시어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 — 히 9:28, 벧전 2:24, 고후 5:21, 요 12:24, 31.
- C.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점에 일어난 전쟁을 묘사해 준다.
 - 1.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 2. 동시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로 분주했다 — 골 2:15.
 - 3.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부하로서 사탄을 위해 일하는 악한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다 — 엡 2:2.
 - 4.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동안,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거기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위에 몰려들어 그분께 바짝 달라붙어 압박하고 있었다 — 골 2:15.
 - a. 그들이 바짝 달라붙어 압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벗기실 수 없었을 것이다.
 - b. ‘벗기시어’라는 말은 우리의 옷이 우리의 몸에 밀착되어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분께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5.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이 수치당하게 하시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 골 2:15.

II.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다 — 계 19:7-9.

- A. 신부의 성숙 — 계 19:7-9, 엡 4:13-15.
 - 1.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다 — 계 19:7, 히 6:1, 빌 3:12-15, 엡 4:13.
 - 2.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 히 6:1.
- B. 신부의 건축 — 마 16:18, 엡 2:21-22, 4:15-16.
 - 1.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 엡 1:5, 출 25:8, 비교 1:11, 40:2-3, 34-35.
 - 2.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건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 엡 3:8, 4:16.
 - 3.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 딤후 3:15-16, 요 17:22, 엡 3:19하, 21.
- C. 신부의 의 — 계 19:7-9, 마 5:20, 22:11-13.
 - 1.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다 — 마 5:6, 20.

2.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생활은 분명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 고후 3:9, 엡 4:24, 골 3:10.
 3. 성도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결혼 예복이 되신다 — 계 19:8.
 4.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결혼 예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 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마 5:20, 계 3:4-5, 18.
- D. 신부의 아름다움 — 엡 5:25-27.
1. 신부인 교회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5장에서 아름다움은 신부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2.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다음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 — 엡 3:17상.
 - a.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시는 것이다.
 - b.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 E. 에베소서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인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계시한다.
1. 영적 전쟁은 몸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전투를 하는 단체적인 군대이다 — 계 17:14, 19:14, 비교 딤후 2:4.
 2.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결과를 낳지만,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가 단체적인 전투원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엡 6:17-18.
 3. 그리스도는 싸우는 장군으로서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것이다 — 계 19:11-21.
 4. 결혼 예복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줄 뿐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는 군대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 마 22:11-12, 계 19:7-8, 14.

III. “여호와의 기쁨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 느 8:10하.

- A. 느헤미야기 8장 10절에 따르면,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1.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 살전 5:16.
 2. 주님의 기쁨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에 기쁨이 있었다.
 3.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여야 한다.
 - a. 우리는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분배받을 수 있다.
 - b.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 B. 워치만 니 형제님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니 전기, 개정판, 21장, 300쪽.
- C.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 D.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인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바란다.